

권력 구조가 복식의 성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 민 선

상명대학교 의류학전공 조교수

The Influence of Power Structure on Sexuality in Dress

Min-Su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6. 2. 14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how a power group in a society forms features of sexuality in dress.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first, historical research was undertaken to study in socio-economic context in which sexuality has been formed and transformed. Second, demonstrative studies on sexual-image styles were undertaken through the analysis of pictures and photos. Thir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wer and sexuality in dress was done by literature research.

Masculinity in dress, such as simplicity and concealment, corresponds to the attributes of the viewer, and femininity in dress, such as decoration and exposure, corresponds to the attributes of the viewee. Power struggle is the complex process of forming of the viewer-viewee relationship. The one who grasps the power becomes the viewer.

In the shift from the Industrial Society to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Society, powers are horizontally spread over the society and the stereotype of sexuality in both women's and men's dress is fading out. In the field of design, standards and certainty described by absolute power are losing their importance. The 'chaotic' view of a world filled with mutual exchang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uncertainty of sexuality will be sure to be a dominant trend in fashion.

Key words: power(권력), sexuality(성), viewer(보는 자), viewee(보여 지는 자)

I. 서론

복식 기원의 기본 동기 중 하나는 성적 매력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몸과 패션은 성적 자극물이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형태로 복식이 전개된다. '아담'과 '이브'가 사용한 무화과나무의 잎은 가장 간단하고도 원시적인 인간의 복장이었다.¹⁾ 이후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육체를 감추게 되면서 오히려 은폐된 신체는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생식기에 한정된 성적 흥미는 몸 전체로 확산되었다.

문명이 더욱 진보되면서 생물학적 성(sex) 위에 사회학적 성(gender)이 부가되었다. 즉 한 사회 내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복식에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상형이 상징되고 이에 따라 복식에 표현되는 성의 모습도 변화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코드피스(codpiece)와 같은 생식기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패션이 존재하여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였다.²⁾ 근대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지고, 우산, 모자, 넥타이, 신발의 앞부분 등 남성의 강건함을 상징하는 디자인 코드들이 개발되었다.³⁾ 이와 같이 사람들은 패션을 통해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성적 흥미를 이끌기 위해 강조되는 부분들이 변화하면서 유행 또한 변화하고 있다.

부르디외(Bourdieu)⁴⁾는 사회 문화의 공간을 권력 계급이 상징한 위계화된 구조로 보았다. 그는 권력은 위계화된 상징 질서를 피지배 계급에게 정당한 것으로 오인(méconnaissance)하게 하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은 시각을 이용하여 왔다. 즉 권력의 세계관을 시각에 의한 차별화된 형태를 통해 표현하고 인지 체계 내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정립되게끔 반복적인 노출과 교육을 통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복식에서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의 표현은 한 사회의 권력이 무엇이 남성적인 것이고 무엇이 여성적인가를 규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권력의 세계관은 의복 행동, 앉는 자세, 걷는 모습 등으로 형태화되면서 인간의 시각을 통해 인지된다. 반복적으로 인지된 형태는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로써 권력은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화 과정에서 가시성이 강한 복식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에 나타난 성의 표현이 권력 구조의 양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권력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남녀 복식에 표현되는 성의 모습도 변화함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이 문화를 형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 사회학, 철학 등의 문헌 연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권력이 상정한 문화 체계의 일부로서의 복식에 표현되는 성에 대해서는 미술사 문헌, 회화 등의 미술 작품, 현대 패션 잡지 등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권력과 관련하여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19세기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생산 수단의 변화가 새로운 권력을 등장시킨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경제 구조가 생산 양식에서 정보 양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권력 양상의 변화가 뚜렷이 전개된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 사회와 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남녀 복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권력(power)을 보는 관점들을 고찰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들을 권력 양상의 변화를 가져온 경제 구조와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그리고 권력이 문화를 형성하고 실천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인간의 심리적·인지적 과정을 부르디외, 푸

코, 프로이트 등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권력이 문화를 형성하고 실천하게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시각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됨을 밝힘으로써 권력과 시각, 복식에 표현된 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추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권력을 보는 관점들

권력을 보는 눈은 다양하다. 사전적 의미로서 권력⁶⁾은 남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힘으로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국가 권력이다. 정치학 사전에서 권력⁷⁾은 권력자가 강제력을 통하여 예측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다. 또는 권력⁸⁾이란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타자의 행동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권력이 형성되는 맥락 속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와 푸코의 이론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⁹⁾는 권력이 경제적 토대를 반영하고 이것을 위해 기능하는 지배계급의 소유물로 본다. 권력은 특정한 계급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계급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 경우 권력은 자연, 본능을 억압하고, 개인이나 계급을 억압한다.

그러나 푸코¹⁰⁾는 권력 관계가 경제 관계들과 함께 있고, 그 안에서 복잡하게 뒤얽히지만 권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틀을 이용해야한다고 본다. 그는 권력을 어떤 개인, 집단, 기구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으로 본다. 즉 권력은 유일한 지점(국가, 군주 중앙 집권화된 구조를 갖는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체제 안에서 다양하고 두루 존재하는 조각나 있고, 분산되어 있는 힘들의 그물망이다.

또한 권력은 단순히 금지하는 힘이 아니라 그것이 작용할 대상을 일정하게 형성하고 그 대상이 스스로 권력을 수행하게 한다.¹¹⁾ 즉 권력은 억압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생산적, 긍정적인 힘이 된다. 권력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을 범주

화하고, 개인을 자신의 개별성에 의해 특징지우며, 개인을 자기의 고유의 정체성에 밀착시키고, 그가 인정해야 하고 타인들이 그에게서 인식해내야 하는 진리의 법칙을 그에게 부과한다.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은 바로 권력의 형식인 것이다. 주체(subject)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통제와 의존에 의해 누군가에게 종속(subject to)되는 것, 그리고 양심 또는 자기-지식에 의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묶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정복(subjugates)하고 종속시키는 권력 형식을 시사한다.¹²⁾

마르크스주의의 권력 개념과 푸코의 권력 개념은 네그리(Negri)¹³⁾가 권력(power)을 지배권력(pouvoir)과 역능(puissan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에 대응될 수 있다. 'Pouvoir'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puissance'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그것에 기초해서 다양하게 무엇인가 하려는 흐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표 1>

19세기에 팽배했던 권력의 지배와 착취의 형식들에 대한 투쟁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주체성의 순종에 대한 투쟁이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현재적 관심들과 권력에 대한 저항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고 있다. 즉 권력기관, 권력 집단, 또는 엘리트, 또는 계급 등을 공격하는 것에 있기도는 권력의 기술과 형식을 공격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표 1> 권력과 저항의 형태

권력 (power)	권력을 보는 관점	권력의 작용	저항의 형태	
지배 권력 (pouvoir)	특정 계급의 소유물	지배, 억압, 금지	지배와 착취에 대한 투쟁	권력 기관, 집단, 계급 공격
역능 (puissance)	다양한 힘들의 그물망	생산적, 창조적, 긍정적인 힘	주체성의 순종에 대한 투쟁	권력의 기술과 형식 공격

2. 경제 구조의 변화가 권력을 보는 관점에 미친 영향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권력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권력을 특정 계급 특히 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권력은 소유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힘들의 그물망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자의 권력은 그들의 권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배 억압 금지 등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권력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개인을 범주화하고, 주체성을 형성하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저항 역시 전자의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 기관, 집단, 계급의 지배와 착취에 대한 투쟁이며, 후자의 권력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인 주체성 순종에 대해 자각하도록 권력의 기술과 형식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권력에 관한 관점은 각각 19세기 산업자본주의와 20세기 후반 후기자본주의의 사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19세기의 산업 자본주의는 공장제도의 성립, 공장에 증기기관의 도입 등 노동을 한꺼번에 없애는 '자동 장치 체계'를 낳는 것을 의미한다.¹⁵⁾ 마르크스¹⁶⁾는 소의를 다루면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 하에서 주-객 관계가 전도되었다고 주장한다. 남녀 노동자는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기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혹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관의 창조적인 특성들이 주관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욕구에 예속되기 때문에, 인간 종의 존재가 망가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자신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불평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지배계급이 노동 계급에 행하는 착취에 대한 투쟁이 전면에 부각되었다.¹⁷⁾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변화에 의존해서 지지된 마르크스에 대한 지지는 20세기 후반의 후기 자본주의를 맞아 증발하기 시작했다.¹⁸⁾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노동이 이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작용을 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 혹은 더 의미를 살려 말하면, 인간이 정보에 작용을

가하고 정보가 인간에게 작용을 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발전된 경제 분야에서는 정보 담당이 인간의 활동을 특징짓는 경향을 띠고 있다.¹⁹⁾

후기 자본주의가 이전의 노동중심의 사회 형태에서 정보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다면, 노동 활동이나 물건들을 생산하기 위해 주관이 물질에 작용을 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지배 관계를 이론화할 수가 없는 것이다.²⁰⁾ 후기 자본주의의 지배 성격의 형태는 착취도 소의도 심리적인 억압도 일탈상태도 그리고 역기능적 행동도 아니다. 그보다도 후기 자본주의의 지배성격의 형태를 규정짓는 것은 사회 현장의 많은 지점에서 실천에 개입하고 그 행위자가 모든 사람이면서 어느 누구도 아닌 일련의 구조를 구성하는 새로운 양태의 사회통제이다.²¹⁾ 이제 사회적 장은 다른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장을 개념화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요구되고 있다. 푸코의 권력에 대한 관점 즉 사회체제 안에서 다양하고 두루 존재하는 분산된 힘들의 그물망으로 보는 관점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전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한다.²²⁾

3. 권력과 문화 실천 기제

부르디외(Bourdieu)²³⁾는 사회 문화의 공간을 권력 계급이 상정한 위계화된 구조로 보았다. 사회 공간 속에서, 지배 계급은 위계화된 기존의 상징 질서 체계를 피지배계급에게 정당한 것으로 오인시키기 위하여 애쓴다. 이는 가정 및 사회 내의 다양한 교육 체계를 통하여 개인에게 내면화된다. 즉 사회질서와 권력을 사회적으로 객관화시켜 스스로 인정하도록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회화 과정이란 각 사회 계급에 일치하는 사고와 행동 및 성향의 체계, 즉 아비투스(habitus)를 재생산하여 계층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영속화하는 과정이다.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불평등한 문화사회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은폐함으로써 지배 계급에 의해 정의된 문화를 주입시키는 기제인 것이다.

부르디외의 권력 지배 이론은 푸코의 사상과 유

사한 점이 무척 많다. 단지 푸코의 지배 이론은 지배 권력이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훈육(discipline)이나 길들이기(dressage) 등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림 1> 부르디외의 권력 이론은 객관적인 외부구조에 대한 개인들의 무의식적인 적응에 초점을 맞춘 오인(méconnaissance)에 근거하고 있다.

피지배자는 자신이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르디외는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행위자가 권력을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회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권력의 효과는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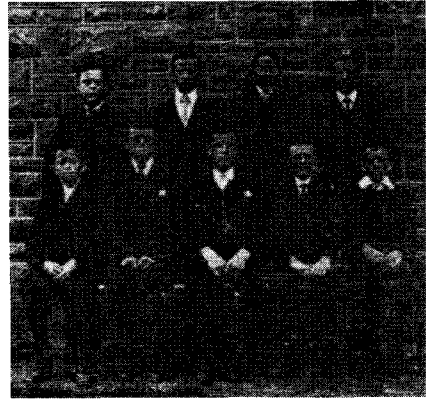
부르디외가 '무의식'(inconscient)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심리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무의식'(inconscient social)을 지칭하는 개념에 더욱 가까운데, 이런 점에서 부르디외의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한 '각 시대의 문명 속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초자아'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²⁵⁾

초자아란 사회가 갖는 가치와 이상이 인성 속에서 발현된 것이다.²⁶⁾ 권력이 상정한 초자아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대표한다.²⁷⁾ 권력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규율을 강조하며,²⁸⁾ 이에 따라 개인은 스스로 본능을 억압하여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성장한다.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된 프로이트의 전통에서 가져온 억압 개념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설명하는 데에 부적합하다.²⁹⁾ 이는 마르크스주의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계급투쟁이 없어져 가는 것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억압 금지보다는 사회적 무의식이나 지식을 형성하여 대상 집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후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수행은 억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권력이 억압적인 성격으로 작동하고 강제나 배제 또는 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권력이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Foucault³⁰⁾에 의하면 권력 집단은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은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수행한다고 한다. 사람의 태도, 자세, 몸짓, 옷차림 등으로 형태

화된 이미지들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서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당연시하고, 우리의 의지라고 인식하고 행했던 것들이 사실은 권력의 효과이다. <표 2>



<그림 1> 남성성에 대한 훈육과 길들이기 (1990년대)³¹⁾

<표 2> 권력의 문화실천 기제

부르디외(Bourdieu)	집단적 오인
푸코(Foucault)	훈육, 길들이기
프로이트(Freud)	처벌과 보상

4. 권력의 문화 실천 기술 ; 형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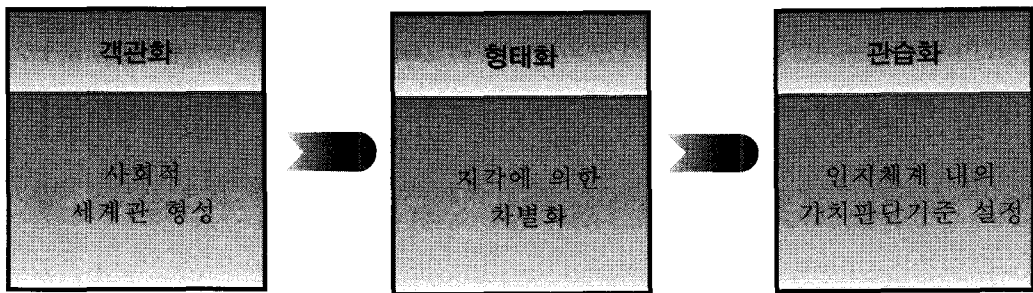
권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 혹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이 객관화되어야 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즉 사회 권력의 객관화 과정을 통해 권력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태화는 바로 권력이 사회적 세계관을 반복된 노출과 학습을 통해 객관화 시키고 이를 관습화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의 기술인 것이다.³²⁾ 일상의 관습 체계에서 권력의 형태화에 관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몇 가지 형용사들 즉 불/물, 높은/낮은, 구운/날, 밝은/어두운, 낮/밤 등은 권력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객관적 관념을 형성하고 이를 형태화³³⁾함으로써 대상 집단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인지하도록

하여 관습화시키기기 위한 것이다.

부르디외³⁴⁾는 권력은 문화적으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객관적 행위를 규정하고, 이것을 관습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형태화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 속의 관습화는 집단적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전 단계의 형태화하기는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다. 결론적으로 형태화하기란 사회적 분류가 구성되는 계기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화하기의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불평등한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행위들에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구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표 3>

<표 3> 권력의 문화 실천 기술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남성적 지배의 결과로 남녀 간의 '사회적 차별의 체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는 지각(perception)의 문제에 개입하였다. 즉 남성은 '과시욕이 억압되자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며, 여성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시선이 부여된 존재가 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도록 끊임없이 권고 받았다. 그들은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회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했다.³⁵⁾

현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풍속이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시각의 작용, 이미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일 것이다. 각각의 사회는 이상적인 남성미와 여성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의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미시 권력 집단이 여성에 대해 혹은 남성에게 대해 그들이 바람직하게 여

기는 이미지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 사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학습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권력이 존재하는 후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은 권력이 집중되었던 산업주의 사회에서 보다 다양해져가고 있다.

Ⅲ. 복식에 표현된 성의 변천

본 장에서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떠한 권력 구조 하에서

형성되었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념이 20세기 중반 이후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사진 자료 추출에 있어서도 복식에 표현되는 성 각각에 대해 산업자본주의 사회 복식과 후기자본주의사회 복식을 선정하였다.

1. 복식에 표현된 성

음양설은 자연이든 인공물이든 모든 대상에는 보다 크고 강하고 직선적이며 질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이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함, 힘, 인내, 밝은 태양과 거대한 거목에서 발견되는 특질을 가진 것이며, 음이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화함과 침착함, 섬세함 그리고 달의 부드러움과 덩굴의 의존성과 같은 특질을

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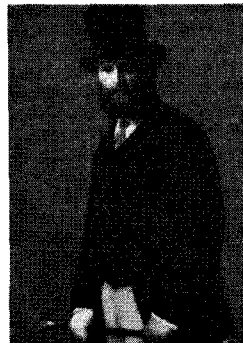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복식에 나타난 성별 코드로서 여성성을 나타내주는 코드는 깊게 파인 목선으로 목과 가슴 등이 노출되고, 화려하게 장식된 의상, 화장 및 신체장식과 장신구 등이다. 남성성을 나타내주는 코드로는 몸을 은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의상, 넥타이나 모자 등의 최소한의 신체 장식을 들 수 있다.³⁶⁾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양의 특성이 여성에게는 음의 특성만이 바람직하다는 문화 규범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념은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의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복식 행동 등의 형태화 과정을 통해 남과 여의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고착하였다.

고대 중국의 음양설은 Northrup³⁷⁾, Morton³⁸⁾, Hastie와 Widger³⁹⁾, Davis⁴⁰⁾ 등에 의해 복식 디자인 요소의 형태에 따른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이래로 음양설은 의상 디자인과 외모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본 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Roach와 Eicker⁴¹⁾Northrup⁴²⁾은 양의 개념을 남성적 복식 행동으로 음의 개념을 여성적 복식 행동으로 도입하였다. 즉 양 개념을 딱딱함, 강함, 박력, 지구력, 위엄, 남성다움, 무거움, 큼, 성숙함이라고 했고, 음 개념을 섬세함, 부드러움, 은화함, 연약함, 우아함, 예민함, 여성다움, 풍부함, 젊음, 빛남이라 했다.⁴³⁾ 이와 같은 복식에서의 남성성(masculine look) <그림 2><그림 3>과 복식에서의 여성성(feminine look) <그림 4><그림 5>은 아직도 사람들의 인지 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음양설에서는 음과 양이 완전히 분류되어 한 대상에는 양 혹은 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은 소음이라하여 여성에게도 양의 특질과 음의 특질이 공존할 수 있고, 남성도 소양이라 하여 음의 특질을 함께 지닌다는 것이다. Sandra L. Bem⁴⁴⁾은 심리학 분야에서 양성성의 개념을 연구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녀는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남성적, 여성적 특질을 함께 지닐 수 있으므로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각각의 척도를 만들었다. 여성성이 높은 사람이 남성성도 높을 수 있고, 보통일수도, 낮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였다. 그는 두 척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양성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Deaux⁴⁵⁾는 남성적 여성적 특질을 모두 거의 갖지 않은 사람들을 양성적으로 보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행동이 중립적임을 주장하였다.

복식에서 성을 표현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페미닌(feminine), 매스쿨린(masculine), 매니쉬(masculine), 앤드로지너스(androgyne), 바이 섹슈얼(bisexual), 듀얼리즘(dualism), 유니섹스(unisex), 젠더리스(genderless)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 가운데 앤드로지너스, 바이섹슈얼, 듀얼리즘, 젠더리스, 유니섹스 등에 관해서는 Bem의 이론에 근거해 모두 양성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⁴⁶⁾ 앤드로지너스, 바이섹슈얼, 듀얼리즘을 양성성으로 젠더리스와 섹스리스에 관해서는 신체의 성을 은폐함으로써 중성적인 이미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종교의 금욕주의와 관련시켜 설명하기도 한다.⁴⁷⁾ 그래서 젠더리스와 섹스리스에 대해서는 성을 일원화, 중성화, 무성화시키는 경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⁴⁸⁾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 표현된 성을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무성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남성성은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최소한의 장식을 한 스타일이며, 여성성은 노출과 화려한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일, 양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스타일, <그림 6> <그림 7> 무성성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모두 배제한 스타일로 정의하였다. <그림 8> <그림 9>



<그림 2> 복식의 남성성 I (1900년대)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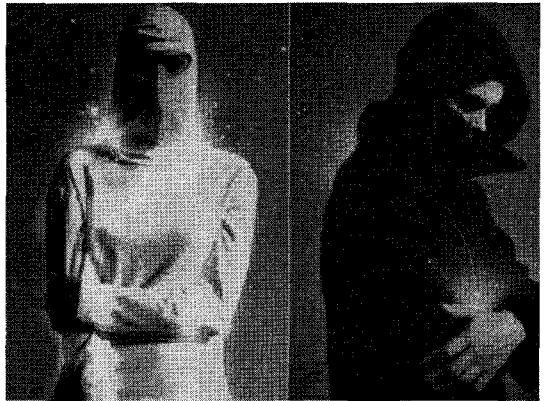
<그림 3> 복식의 남성성 II (1960년대)⁵⁰⁾



〈그림 4〉복식의 여성성 I (1888)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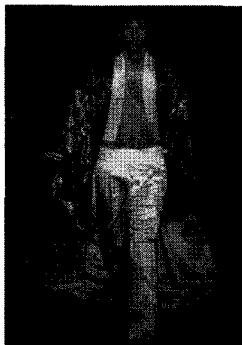
〈그림 5〉복식의 여성성 II (2000)⁵²⁾



〈그림 9〉복식의 무성성 II(2005)⁵⁶⁾
Davin Gensler



〈그림 6〉복식의 양성성 I (1819)⁵³⁾



〈그림 7〉복식의 양성성 II (2002)⁵⁴⁾



〈그림 8〉복식의 무성성⁵⁵⁾

2. 복식에 표현된 성의 변천

권력 양상의 변화가 복식에서 성의 표현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강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기 위하여 경제 구조가 생산 양식에서 정보 양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권력 양상의 변화가 뚜렷이 전개된 19세기의 산업자본주의사회와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기 자본주의사회의 남녀 복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산업 자본주의 사회-생산 양식

근대 부르주아적 복식의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남자의 복식이 남성화되었다는 것이다. 부르조아 문화의 본질은 남성적이었고, 생산적이었으며, 창조적이었다.⁵⁷⁾ 1848년에서 1870년 사이에 영국이 유럽 사회에서 최강국으로 등장하자 영국의 복식 특히 남자의 복식은 유럽 전체를 이끌었다. 이전 시대의 남성 복식에서의 장식성이 사라지고, 검소하고 허세 없는 복식이 남성을 지배하였다. 남성 복식은 근대적인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면서 현대 남자 복식의 원형을 이루었다.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변천은 남성과는 정반대였지만, 그것은 완전히 자본주의 요구에 일치하였다.⁵⁸⁾ 여성의 천부의 가치는 남성을 매혹함으로써 신의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그때문에 여성의 복식에 에로틱한 폭선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그 후 줄곧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근대의 여성들은 그들의 외모를 가꾸도록 끊임없이 권고 받았다. 그들은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회에 대한 그

들의 첫 번째 의무였다.⁵⁹⁾ 근대의 남성미와 여성미의 이상은 서로 매우 달라서 모순적이라고 생각했다. 여성의 아름다움의 개념은 '여성다움'과 관련이 있었고, 남성의 아름다움은 '힘'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남성은 강하게 발달한 가슴과 어깨가 있어야 했다.⁶⁰⁾

따라서 이 시대의 남성복은 가능한 한 육체적 매력을 감추고 육체적 힘을 증명하려하였으며, 남성들의 행동, 힘, 공격성을 확실히 표현하고자 허리와 가슴의 보다 명확한 윤곽이 지속되었다. 한편, 여성의 복식은 깊게 파인 넥 라인으로 목이 노출되었으며, 가는 허리, 부풀린 크리놀린으로 풍만한 엉덩이가 강조되었고, 과다한 레이스, 꽃, 프릴 등으로 치장되었다. <그림 10>

이 시대에도 남성이 그들의 복식에 여성성의 요소를 도입하거나, 여성이 남성성의 요소를 도입한 예들이 있었다. 19세기 이래로 복식을 통해 표현되는 성적 행동과 성일체감이 사회적 반항의 매개물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⁶¹⁾ 19세기의 덴디즘이나, 미국 페미니스트들이 착용한 터어키식 바지 등이 그것이다.⁶²⁾ 그러나 여성의 바지 착용은 서구 사회에서 여성해방이라는 신화를 상징해 줄지는 몰라도 사실상 지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남성의 권위에 대한 관습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여성 해방 운동은 오히려 '나약함'을 두려워하는 사회상을 반영했으며, 이러한 시기에 여성적인 패션을 수용한 남자는 상당히 혐오감을 일으켰으며, 이탈자로 규정되거나 코미디에서 웃음을 만들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러한 복식 행동은 사회적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형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대중화를 조건으로 하는 패션의 주류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

2) 후기 자본주의 사회-정보 양식

2차 대전 이후 하류 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형성된 많은 청소년 하위 문화 집단들 -테디보이, 모즈, 스킨 헤드 등은 상대 성의 복식 요소를 착용함으로써 기존 세대에 대한 반항심을 표현함으로써 산업 자본주의 시기의 가정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20세기 후반에 도래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구조가 생산 양식에서 정보 양식으로 변화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차별적 위계적 질서를 대신해서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는 젊은 계층의 힘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하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하위 문화 스타일이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진일보가 이루어졌다.

터너(Bryan Turner)⁶³⁾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증하는 정보 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들의 중요성은 실업, 조기 퇴직, 늘어나는 여가 기회와 관련된 생활양식의 변화, 전통적인 도시 노동자 계급의 감소와 관련 있다고 하였다. 이런 변동은 여가와 소비를 재구성하여, 노동계급의 젊은 남성은 잉여 인구가 되고 있고, 힘을 강조하던 남성다운 이미지는 그들에게 강요된 여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어 노동하는 몸은 욕망하는 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몸을 멋진 삶의 상징과 문화 자본의 표식으로 삼으려는 강한 상업주의적 관심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소비의 측면 이외에도 늘어가는 몸의 부인, 죽음의 거부, 스포츠의 중요성, 몸매 가꾸기의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 그리고 아름다운 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⁶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복에서도 앤드로지너스룩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즉 남성복에 흔히 여성성이 도입되고 있다. 꽃무늬가 그려진 셔츠, 화려한 색상,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악세서리 착용 등의 장식성과 씨스루(see through) 소재의 셔츠 등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패션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상적인 남성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과 관계된다. 즉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권력의 주체로서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남성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몸에 여성에게 줄 거움을 줄 수 있는 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패션도 노출적이거나 장식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 산업 자본주의 가정의 남성복식과 여성복식 (1903)⁶⁵⁾



<그림 11> 후기자본주의 가정의 남성 복식과 여성 복식 (1954)⁶⁶⁾

산업자본주의 사회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복식에 표현된 성을 권력의 양상과 관련지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권력과 복식에 표현된 성

시기	경제구조	권력을 보는 관점	시각		복식에 표현된 성	복식 디자인 특성
			남성	보는 자	남성성	단순 및 은폐
산업자본주의 (19세기)	생산양식	남성의 소유물	여성	보이는 자	여성성	장식 및 노출
			남성	보는 자인 동시에 보이는 자	남성성	단순 및 은폐
후기자본주의	정보양식	상호 작용시 발생하는 다양한 미시권력들 간의 그물망	여성	보는 자인 동시에 보이는 자	여성성	장식 및 노출
			양성성		양성성	단순 및 은폐 장식 및 노출

IV. 권력과 복식에 표현된 성

본 장에서는 지각 과정에서의 권력 관계 즉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로서 복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권력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도록 한 과정을 산업 자본주의 시기와 후기자본주의 시기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산업 자본주의 시기에는 지배 권력의 영향으로 인한 남녀 복식의 차별화를 설명하였다. 후기 자본주의 시기에는 다양한 미시 권력들의 힘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현 사회의 복식에 표현된 성의 혼돈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권력과 시각

볼어 savoir(알다)라는 말에는 avoir(소유하다)가, avoir라는 말 속에는 voir(보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바로 이 구조야말로 Berge (67)가 지적하듯이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문화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보는 것은 소유 개념으로 귀결되어 그 소유 의식이 그들의 지식 체계와 구분하기 어렵게 연결되어 있었다.

근대와 같이 지배 권력의 힘이 막강했던 사회에서는 차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어야 했다. 68) 즉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형태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에 호소하여 인지 체계 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관습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히 권력이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각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욕망

에 호소하기 위해 가장 커다란 기능을 하는 것은 눈의 작용인 시각이다. 인간이 직립함에 따라 후각이 쇠퇴하고, 시각이 발달하게 되었다. Freud는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으로 투사된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⁹⁾ 인간의 직립 이후 다른 감각 기관에 대해서 눈이 차지하는 지위는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의식적인 동물인 인간의 성적 자극은 주로 눈에 의해 전달되게 되었다. 시각의 기능은 추상적이어서 특정 부분에 집중될 수도 있고, 암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에 호소하는 부분이 지극히 큰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성의 표현력은 시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⁷⁰⁾

근대 사회의 지배 권력은 시각적인 욕망의 남성의 고유한 본능으로 관습화하고자 하였다. 박물관에서 보여 지는 남성의 욕체는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매스컴에서나 일상적인 영역에서 에로틱한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은 오랫동안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여성의 성적 역할은 수동적이며, 여성은 먼저 자기를 능동적인 남자의 성적 욕망의 객체로서 의식하는 것이었다. 에로틱한 미술에 있어서 감상자 혹은 소유자는 거의 남성이었고, 오브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 불평등한 관계는 우리 문화 속에서 상당히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⁷¹⁾

그러나 보려는 주체와 대상이 반드시 남과 여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⁷²⁾ Freud는 19세기 이후 남성들은 그들의 '과시욕'이 억압되자 보다 높은 수준의 능동적인 형태의 '관찰'로 행동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수동적으로 '보여 지기 원하는' 본능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복식에 성을 표현하게 된 무의식적 동기는 남녀 공히 소유하고 있으나 사회의 지배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허용되면서 남녀 간의 구별이 형성되는 것이다.

2. 권력과 성

복식에서 성에 관한 관념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푸코가 모든 의미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담화 속에서 형성되며, 변화지 않으며 어느 곳 어느 때나 적용되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다.⁷³⁾ 푸코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행위의 주체는 권력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상호 작용은 권력 관계를 포함하며, 모든 종류의 규율적 행동은 권력의 작용을 나타낸다. 즉 권력은 지식을 낳고, 그러한 지식은 규제적이며, 통제적이고, 결국 권력을 수행한다. 따라서 권력이 바뀌면 지식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표준도 변화하며,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관한 이미지도 역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은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행위와 신체 뿐 아니라 마음과 의도까지 만들어 낸다.⁷⁴⁾ 자연스러운 것, 익숙한 모든 것이 권력이 효과인 것이다. 권력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나 지식의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⁵⁾ 부르디외는 이러한 권력의 효과를 오인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오인은 집단적 믿음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코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당연시된 믿음의 상태이다. 권력은 금지나 부정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여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며, 담화를 만들어 낸다.⁷⁶⁾

산업 혁명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남성은 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여성의 몸과 패션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이 지배 관계에 함축된 이성에 의해 조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정립된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와 화이트 셔츠는 강하고 단순한 형태로서 당시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자기 절제력이 강한 남성성을 표현하였다. 남성들은 여성복을 장식적이고, 노출적인 것으로 만들어 이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남성들은 성적 만족을 위해 시각을 사용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권력 관계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재생산하였다. 가시성이 큰 복식은 가부장제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나 심리에 관계한 차이를 더욱 과장하였다. 남성들은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부가적인 존재로 전락시켰으

며 그들의 억눌린 욕구들을 여성의 패션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패션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욕망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존재하며, 보고자하는 욕구 역시 남녀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여성의 신체와 선정적인 자세, 그리고 이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이다. TV나 라디오, 영화나 비디오 드라마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단면으로 거기에 제시된 것들을 받아들여도록 한다. 하지만, 실상 제시된 것은 실제 그대로의 모습이기보다는 무엇이 정상적인가, 일탈적인가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는 위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적 고안물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여성성에 대한 기본 가정, 이들의 남성과의 관계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에 의해 재생산된다. 여성해방론자들은 이성, 진실, 인간의 본질, 역사, 전통이라는 기존의 범주들은 과연 누구의 진실이고 누구의 본성이며, 누구의 이성이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간주의가 내세우는 인간의 허구성을 폭로하여 왔다.⁷⁷⁾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와 함께 여성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 인류학자 Helen Fisher⁷⁸⁾는 그의 저서 『제 1의 성』에서 여성들은 좌뇌와 우뇌가 남성들에 비해 덜 분화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공통점이 없는 작은 사실들을 보다 빨리 흡수 이해하여 통찰력이 번득이는 관점을 만들어 내는 데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면서 사회적 통념과 관례들을 빙하처럼 천천히 전복시키고 있으며, 미래는 여성에게 속해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상적인 남성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의 몸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킴으로써 여성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남성의 관능성을 만들고 있다. 복식에서도 노출과 장식이라는 여성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남성을 보여지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산업자본주의사회의 남성들에 의해 규정되었던 여성과 남성이라는 경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3. 권력과 복식

의복은 권력이 상정한 바람직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개념을 시각화하고, 개인의 정체체감 형성을 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사람들은 권력이 만들어낸 성에 관한 개념과 일치한 복식이나 혹은 불일치한 복식을 공적으로 착용함으로써 권력 행사에 기여하거나 또는 이에 저항한다.

남성성과 여성성,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 개념들은 이들을 규정한 권력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식사를 통해 실증될 수 있다. 즉 서구 사회에서 낭만주의 시기 이전까지 남성은 여성 못지않게 과장되고 야한 모습으로 패션에 참여하여 왔으며⁷⁹⁾ 그들의 패션에 나타나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관념 역시 차이나 위계적 대립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나 산업 혁명 이후, 남성을 직업을 가진 존재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은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머무는 존재로서 양극화 현상이 진행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념 역시 사회적 우월과 열등의 표시로서 대립되었다. 남성성에 대한 정의는 여성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몸과 패션 위에 표상되었다. 남성복의 복식 규정은 신체를 은폐하고, 단순하고 장식을 배제한 형태로서 직업과 근검성을 증명하는데 반하여 여성복의 규정은 신체의 노출과 화려한 장식으로 성적 매력, 의존성, 가정에 얽매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대표하였다.⁸⁰⁾ 즉 시각을 소유한 남성을 보는자로서 그렇지 못한 여성은 보여지는 자로서 차별화되어갔던 것이다. 또한 신체를 은폐하고 단순한 복식을 남성적인 것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장식적인 복식을 여성적인 것으로 하는 가치판단 기준이 이시기에 성립되어 사람들의 인지 체계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이 가부장제도에 의해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에 주목하여, 패션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뿐만 아니라 남성성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여 왔

다. 또한 정보화라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열리면서 예전의 절대 권력이 해체되고, 다양한 힘의 집단들이 수평적으로 재구성됨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위계적 대립이 붕괴됨에 따라 남성들은 부정적으로 인지되었던 여성적 복식 코드를 패셔너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산업 혁명 이후 남성은 인위적인 생산을 하게 된 반면에 여성은 자연적인 생산을 맡게 되면서, 벗은 몸은 야만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⁸¹⁾ 그러나 Chanel에 의해 1920년대 여성과 합리성을 대표하는 슈트를 저지 직물로 제작하여 신체의 암시적 노출이 비롯되었다. 당시 남성에게도 이러한 슈트 착용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일탈로서 여겨졌다. 1960년대에 남성복에서 니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⁸²⁾ 1980년대 Armani는 남성복에 부드러운 소재로 신체와 그 움직임에 반응하는 직물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의복은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⁸³⁾ 또한 현재에는 스포츠 웨어에서 사용되는 스판덱스 소재에 의한 노출이 시도되고 있다. 혹은 속옷 자체가 패션이 되기도 하고, 속옷의 라인이 디자인에 응용되기도 한다. <그림 8>

Flügel은 나르시시즘은 여성들의 장식적인 복식으로 대치되어 나타나고, 장식적인 여성복은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더욱 부추킨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여성 복식과 남성 복식의 차이를 묘사하였다. 장식의 변화에 따라 유행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여성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연결시키는 등 여성성에 관한 부정적 특질과 관련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여성이 자아도취적임을 강조하는 하나, 남성 역시 자아도취적임을 인정하고 있다.⁸⁴⁾

눈에 두드러지는 디테일,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바삭거리면서 표현에 광택이 있거나 재질이 도드라진 장식적인 소재, 화장하고 섬세하게 다듬은 머리 등의 장식적인 패션은 이제 더 이상 여성의 것만이 아니며, 남성의 패션에서도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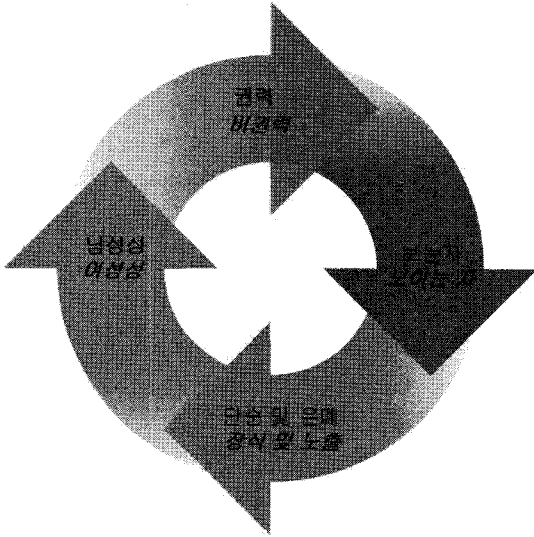
<그림 8> 남성복에서의 노출 (2005)⁸⁵⁾



<그림 9> 남성복에서의 장식 (2005)⁸⁶⁾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관념은 보는 자(viewer)와 보여 지는 자(viewee)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⁸⁷⁾ 19세기 이래 단순하고 은폐하는 스타일의 의복은 남성적인 것으로 장식적이고 노출이 많은 스타일의 의복은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는 시각을 소유하고 보는 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권력에서 소외된 자는 보여 지는 자로서 위치되기 때문이다. 근대 사회에서 권력의 개념은 지배 권력으로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우열의 개념으로 대립되어 있었으며, 보는 자와 보여 지는 자, 남성성과 여성성에도 수직 체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권력은 보다 미세하게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지배 권력 보다는 다양한 힘의 그물망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다양한 사회 내에 속하고 있는 개인은 보는 자와 보여 지는 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맡게 된 것이다. 다양한 힘이 그물망처럼 얽혀있듯이 보는 자와 보여 지는 자로서의 역할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개인은 그가 속하는 다양한 사회와 사회 내의 상호작용 간에 야기되는 상황에 따라 보는 자가 되기도 보이는 자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관계가 남과 여의 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때로는 단순하거나 신체를 은폐하는 남성적 복식을 때로는 장식적이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여성적 복식, 또는 남

성적이면서 동시에 여성적인 복식을 착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



<그림 10> 권력과 복식에 표현된 성

V. 결론

권력은 그들의 세계관을 객관화하고 관습화하기 위해 시각을 이용해 왔다. 권력은 그들이 상정하는 문화를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게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려는 충동과 자아도취 다시 말해서 관음증과 과시욕 등을 이용해 왔다. 권력은 권력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인지 체계 속에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한다. 이때 권력을 가진 자는 보는 자로서 권력을 갖지 못한 자는 보여지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식의 디자인 코드인 단순성과 장식성, 은폐와 노출은 보는자와 보이는 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구실을 한다.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20세기 후반이후 현재까지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서 권력을 이해하는 시각에도 전환이 있었다. 즉 권력을 소유물로 보는 관점 즉 지배계급 대 피 지배 계급의 대결 양상으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다양한 힘

들의 그물망으로 보는 관점 즉 한 사회 내 사람들의 다양한 상호 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힘의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19세기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이 지배 권력으로 여성을 억압하였다. 이 시기에 보는 자와 보이는 자는 남자 대 여자라는 성의 위계질서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복식에 표현된 성 역시 남성은 보는 자로서의 역할을 여성은 보이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남성과 여성은 단순성과 장식성, 은폐와 노출이라는 양극화된 복식을 착용하였다. 남성은 단순하고 은폐하는 남성적 복식을 착용하고, 여성은 장식적이고 노출이 많은 여성적 복식을 착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도 남성이 여성적 복식을 착용하거나 여성이 남성적 복식을 착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적 복식이었을 뿐 패션의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한 사회 내에 지배 권력(pouvoir)이 존재한다면, 이들이 부여한 획일적인 패션과 이에 저항 하는 패션이 극적인 대립을 이룰 것이다.

20세기 후반이후 현재까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관계가 단순히 남성 및 여성에 대응되지 않는다. 남과 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보는 자로서 갖지 못한 자는 보이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혹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보려는 충동과 자아도취 즉 관음증과 과시욕은 상반되지만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 중 보려는 충동은 남성의 것으로 자아도취를 여성의 것으로 정의 내리고 강요했던 지배 권력의 존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복 모두가 양성화되어가는 경향은 이러한 상반되지만 동시적인 욕망의 표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력(power)이 다양화되고 그러한 권력(puissance)들은 수평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힘의 집단(puissance)이 생성 및 소멸을 거듭하면서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패션이 피고 지면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듯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송윤하(1998). 에로티시즘. 서울: 춘광, p.18.
- 2) McDowell, Colin(1997). *The man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16.
- 3) Hollander, Anne(1994). *Sex & suit*. N.Y.: Alfred A. Knopf, p.77.
- 4) 현택수 편(1998). 문화와 권력 -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 p.7.
- 5) *ibid.*
- 6) 이희승 편저(1998).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7) 양운덕(2003). 미셸 푸코. 서울: 살림, p.13.
- 8) 민영택(1968). 정치학 사전. 서울: 문영각, p.351.
- 9) 양운덕(2003). *op. cit.*, p.16.
- 10) Foucault, Michel(1976). *L'histoire de la sexualite, I*. Gallimard, p.122.
- 11) 양운덕(2003). *op. cit.*, pp.18-23.
- 12) Foucault, Michel, 정일준 편역(1994). 미셸 푸코의 권력 이론. 서울: 새물결, pp.91-93.
- 13) 서울 사회 과학 연구소(1997). 맑스, 프로이트, 니체를 넘어서: 근대성의 이론적 비판. 서울: 셋길, p.48.
- 14) Foucault, Michel, 정일준 편역(1994). *op. cit.*, p.93.
- 15) Poster, Mark, 조광제 역(1992).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 푸코와 마르크스주의. 서울: 민맥, p.63.
- 16) *ibid.*, pp.64-68.
- 17) Foucault, Michel, 정일준 편역(1994). *op. cit.*, p.93.
- 18) Porat, Marc(1977). *The information economy: volume I, definition and measuremen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Commerce, p.8.
- 19) *ibid.*, p.8.
- 20) Poster, Mark, 조광제 역(1992). *op. cit.*, p.68.
- 21) *ibid.*, p.96.
- 22) *ibid.*, p.68.
- 23) 현택수 편(1998). *op. cit.*, p.9.
- 24) 이광래(1995). 미셸 푸코. 서울: 민음사, p.57. *ibid.*, pp.186-187.
- 25) *ibid.*, pp.202-205.
- 26) Fromm, Erich & Osborn, Richard, 김기태 역(1992). 정신분석과 유물론. 서울: 선영사, p.66.
- 27) *ibid.*, p.62.
- 28) S. Hall, Calvin, 지경자 역(1993).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서울: 홍신문화사, p.45.
- 29) Poster, Mark, 조광제 역(1992). *op. cit.*, p.101.
- 30) 이광래(1995). *op. cit.*, p.57.
- 31) Craik, Jennifer(1993).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p.181.
- 32) 현택수 편(1998). *op. cit.*, pp.206-207.
- 33) *ibid.*, p.208.
- 34) *ibid.*, pp.208-211.
- 35) Steel, Valerie(1985). *Fashion and eroticism*. London: Oxford Uni. Press, p.102.
- 36) 최현숙(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7) Northrup, B.(1936). *An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stume and personality*. Art Education Today II, pp.94-104.
- 38) Morton, G.M.(1978). *The art of costume and personal appearance*. N.Y.:John Wiley & Sons.
- 39) Hastie, R.T. & Widger, R.F.(1976). *New insight into meaning of masculinity & femininity in dress*. ATPTC combined proceedings. Georgia: Georgian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Univ. of Georgia.
- 40) Davis, M.N.(1980). *Visual Design in Dress*. N.Y.: Prentice-Hall, Inc.
- 41) Roach, M.A. & Eicher, J.B.(1973). *The visible self*. N.Y.: Englewood Cliffs.
- 42) Northrup, B.(1936). *op. cit.*, pp.94-104.
- 43) Sears, J.O. & Carlsmith, J.M.(1981). *Social psych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491-500.
- 44) Sandra, L. Bem.(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pp.155-162.
- 45) Deux, Kay, 이해성 역(1986). 남녀행동 연구. 서울: 이화문고.
- 46) 유흥식, 황선진(2003). 패션 잡지에 나타난 양성 이미지의 사회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I). 복식문화연구, 11(6), p.854.
- 47) 최수아(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9.
- 48) 이유미(2001).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
- 49) Hallander, Anne, *op. cit.*, p.129.
- 50) *Late 60's Fashion Style*(2003). Tokyo: P.I.E Books, p.122.
- 51) Lurie, Alison, 유태전 역(1986).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p.63.
- 52) *Arena. March 2000*, p.171.
- 53) McDowell, Colin (1997). *op. cit.*, p.59.
- 54) *View. Autumn 2002*, No.59, p.191.
- 55) Lurie, Alison, 유태전 역(1986). *op. cit.*, p.176.
- 56) *View. Summer 2005*, No.70, p.284.
- 57) Fuchs, Edward, 이기웅, 박종만 역(1991). 풍속의 역사 IV. 서울: 까치, 1991.
- 58) *ibid.*, p.21.
- 59) Steel, Valerie(1985). *op. cit.*, p.102.
- 60) *ibid.*
- 61) Wilson, Elizabeth(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180.
- 62) *ibid.*, p.200.
- 63) Turner, Bryan, 임인숙 역(2002). 몸과 사회. 서울: 몸과 마음, p.29.
- 64) 임은혁(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
- 65) Strolley, Richard B. (2000). *Life our century in pictures*. London: A Bulfin Press Book, p.264.

- 66) Polhemus, Ted(1997).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p.35.
- 67) Berger, John, 편집부 역(1990). *이미지*. 서울: 시각과 언어, p.249.
- 68) Mirzoeff, Nicholas, 이윤희 이필 역(1999). *바디스케이프*. 서울: 시각과 언어, pp.58-59.
- 69) Brooks, Peter, 이봉지, 한애경 역(2000). *육체와 예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p.200.
- 70) 송윤하(1998). *op. cit.*, p.43.
- 71) Berger, John, 편집부 역(1990). *op. cit.*, p.111.
- 72) Wright, Elizabeth, 박찬부, 정정호 역(1997).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진*. 서울: 한신문화사, p.706.
- 73) 김정란 (1993). *푸코 권력 이론의 여성 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74) 이광래(1995). *op. cit.*, p.3.
- 75) Foucault, Michel, 홍성민 역(1991). *권력과 지식*. 서울: 나남, p.88.
- 76) *ibid.*, p.152.
- 77) 김정란(1993). *op. cit.*, p.36.
- 78) Fisher, Helen, 정명진 역(2000). *제1의 성*. 서울: 생각하는 나무, p.44.
- 79) Hollander, Anne(1994). *Sex & suit*. N.Y.: Alfred A. Knopf, p.22.
- 80) 최현숙(2000). *op. cit.*, p.3.
- 81) Kent, Sarah & Morreau, Jacqueline, 정소영 역(1996).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 서울: 삼신각, pp.120-26.
- 82) McDowell, Coline(1997). *op. cit.*, p.132.
- 83) *ibid.*, p.194.
- 84) Steel, Valerie(1985). *op. cit.*, p.29.
- 85) *View*. 2005 Winter, No.68., p.63.
- 86) *View*. 2005 Winter, No.70., p.54.
- 87) Edward, T.(1997). *Men in the mirror: men's fashion, masculinity and consumer society*. London: Cassell, Wellington House, p.44.